

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추진

공문서 처리 관행 개선·통제관 지정 운영 등 6개 분야 추진 계획 안내

전북도교육청은 불필요한 공문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문서 감축에 나섰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공문서 감축 추진 계획'을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에 안내하고, 단위학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공문서 생산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공문서 감축 추진 계획은 △공문서 처리 관행 개선 △공문서 통제관 지정 운영 △자료집계시스템 활용 유도 △공문서 불필요신고제 시행 △공문서 총량제 시행 △공문서 감축 평가제 등 6개 분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시적인 공문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공문서 양을 감축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공문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

다.

특히 외부기관의 홍보성 공문을 학교에서 접수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공문계시 처리해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문서 통제관도 지정·운영한다. 각 기관에서 공문서 통제관을 지정, 각급 학교로 발송되는 모든 공문서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공문서 통제관은 도교육청에서는 과장 및 담당관이,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각 부서장이 맡는다.

자료집계시스템 적극 활용도 유도한다.

단순하거나 경미한 자료 요구시에는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를 위해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자료집계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문서 불필요 신고제도 시행한다.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문서 불필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계시관 처리와 모니터링 결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각 기관별·부서별 공문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문서 감축률을 성과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공문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외부기관 공문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개강 후 2주간 온라인 재택수업 실시

코로나19 유입 차단·학생 학습권 보호·불안감 해소 위해

군산대학교는 학무조정회와 학처장회의를 개최하고 개강 후 2주간 LMS(eclass)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재택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학 내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내려진 조치이다.

또한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따라 군산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을 2일에서 2주 연기한 16일로 늦추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등교 시점을 늦출 필요가 제기되어 등교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

은 3월 16일, 등교일은 3월 30일, 종강일은 6월 18일이 될 예정이다.

군산대학교는 개강 후 2주간은 LMS(eclass)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강의 및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통해 대면 강의를 최대한 늦추고, 등교 후에는 주말 등을 이용해 학점당 필요한 이수 시간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군산대학교는 현재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주 수업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은 온라인 강의 등 수업자료를 해당 수업일 전날까지 LMS(eclass) 시스템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재택수업을 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하

고 있다.

온라인 강의콘텐츠 제작을 위해 모든 전임 및 비전임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강의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1인 콘텐츠 저작도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영상강의(MOOC) 및 이러닝 등 고품질 강의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통합형 미디어 스튜디오와 감사추적 녹화시스템이 갖추어진 스마트 강의실을 통해 고품질의 강의콘텐츠 촬영을 지원한다.

곽병선 총장은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최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수업 관리에도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협의회 오늘 개최

상반기 실지감사 일정·감사대상 선정·운영 개선 등 논의

6일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협의회가 열린다.

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조사 및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제도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실지감사는 1년에 두 차례, 각 10일씩 실시한다.

이날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는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는 상반기 실지감사 일정 및 감사대상 선정, 시민감사관 운영 개선에 관한 안건을 다룬다.

시민감사관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도교육청은 의견서 접수 후 감사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시민감사관

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은 다양한 교육정책 분야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게 될 것"이라며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에 참여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학생들이 '2020년 1회 정기 과정평가형자격' 시험에서 20명 전원이 합격했다.(과정평가형 교육에 학생들이 임하고 있는 사진)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과정평가형자격시험 전원 합격

방학동안 별도 자격증 특별반 참여 등 노력으로 취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미용건강과 학생들이 '2020년 1회 정기 과정평가형자격(미용사-일반)' 시험에서 20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는 2017년도부터 헤어미용 과정평가형 국가자격과정 과정 운영 지정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1학년 교육과정동안 과정평가형 국가자격반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2학년 과정에서 진행되는 Linx+(사

회수요맞춤형)사업에서 주관하는 헤어스타일리스트반에 전원 지원했다.

이 사업의 지원을 통해 방학동안 2주간의 별도 자격증 특별반에 참여했다.

전주비전대학교 관계자는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해 학생들은 시험에 대비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철저한 감염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말했다.

이효숙 교수(미용건강과)는 "국가자격증 취득으로 자신감 향상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용인으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시작했다"며

"본 과정은 국가에서 정한 일정자격요건들이 충족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의 세밀한 지도 관리와 관심이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평가교육마다 성실하게 임해 준 학생들에게 큰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일정 요건의 시설과 장비를 갖춰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수탁 협약 연장

2023년 12월까지 4년 연장... 도시재생 전문인력 육성·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다양한 업무 수행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수탁 협약'을 2023년 12월까지 4년 연장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비는 2020년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2억원을 포함, 4년 동안 총

8억원 상당이다.

임실읍이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염수원)도 이에 발맞춰 도시재생 전문인력 육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관리체계 구축, 주민협의체 지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염수원 센터장(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임실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이해를 높이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주민 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산학협력단 및 부동산학과는 지난 2016년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대학 운영, 2017년 산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8년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의 사업을 수행해오며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